

발행 (사)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1995.8.7.)

발행인 송기인
정간물등록번호 종로라00453
등록일 2006년 8월 4일
발행일 2024년 3월 1일



후원회 소식지 제329호

누리집 <http://gaspi.org>
이메일 gaudium95@hanmail.net
전화 (02)3672-0253
전송 (02)3672-0255
주소 03086
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89(동숭동)

3월의 기도, 요셉 성인과 같은 의로운 사목자, 의로운 정치인을 고대합니다

3월 요셉성월입니다. 3월 19일에 요셉 성인 축일을 장엄하게 기리지만 전례상 사순절이라, 요셉 성인의 삶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적 관점이지만 어느 문인의 표현처럼 아버지들이 외롭듯이 요셉 성인도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 3월에 요셉 성인과 함께 아버지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요셉 성인께 집중했으면 합니다. 요셉 성인은 이름 그대로 의인(義人), 가정을 꾸리신 책임 있는 가장(家長),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소임을 다한 하느님의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의인, 가장, 충직한 종, 이 삼중의 의미를 되새기며 요셉 성인을 기립니다.

요셉은 바로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조 요셉을 연상케 하는 이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 1,17)는 말씀과 함께 바로 정의와 믿음이 한쪽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셉 성조는 형들의 살해 위협과 모함, 옥살이 등을 거쳐 끝내는 높은 자리에 올라 가뭄과 기아에서 동족을 살려낸 지도자로, 구세주 예수님의 전표입니다. 오늘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는 요셉 성인과 같은 의로운 가장, 의로운 정치인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배필이신 요셉은 훌륭한 가장,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피난길에 오르시며 생계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날 모든 아버지들을 생각하며 가장들과 사목자들, 정치인들

이 자신의 책무를 잘 깨닫고 가정과 국가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도록 염원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충직한 종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훌륭한 관리인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때에 자기 식구들에게 음식을 마련하는 슬기로운 일꾼입니다. 우리 시대는 참으로 이러한 헌신적 정치인을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목자와 정치인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크게 실망하며 좌절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요셉 성인께 전구해 헌신적 사목자와 정치인들이 배출되도록 특히 대통령이 시민들을 위해 ‘정직한 종’, 겸허한 봉사자가 되도록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년의 날입니다. 조국과 겨레를 위해 목숨 바친 안중근 의사는 신앙인의 귀감이며 겨레의 길잡이입니다.

4월 10일은 충선일입니다. 요셉 성인의 삶과 안중근 의사의 헌신을 기초로 우리는 국회의원을 잘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요셉 성인과 같은, 안중근 의사와 같은 참된 봉사자들을 우리가 잘 식별해 선택해 주십사 하느님께 간구하며 미사 봉헌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합니다. 하느님, 저희 모두를 이끌고 깨우쳐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룩하게 해주소서. 아멘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신부 / 연구원장〉



게으름을 멀리하고 베풀며 살아야겠다

복기(復棋)는 바둑이 끝난 후에 대국의 내용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시 놓아보는 것을 말한다. 바둑은 한 수, 한 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돌들의 선후 관계를 쉽게 추론해낼 수 있으므로 엄청난 기억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복기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판을 재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착을 찾아내어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런 예들을 쌓아 직관을 키우기 위함이다.

타인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건 쉽지만 본인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건 어려울뿐더러 자기합리화로 이어지기에 십상

나의 대학 생활을 이루는 큰 두 축인 바둑과 기톨릭은 복기의 관점에서 공통적이다. 기톨릭의 피정과 고해성사를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조용한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 살펴며 기도하는 피정은 그 본질이 상당히 복기와 비슷하다.

나 자신을 비우고 깨끗이 하기 위해 묵상과 침묵 기도를 통한 종교적 수련이 동반한다는 점에서 피정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란 무엇일까? 사람마다 각각의 정의를 하고 있겠지만, 내가 내리는 깨끗함의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본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고쳐야만 한다.

자기 자신의 치졸한 모습과 안 좋은 과거를 마주하여 고해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지만 이를 외면한 채 본인은 몇몇한 사람이라고 고개를 꺾으며

우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며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 않다.

또한 타인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건 쉽지만 본인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건 어려울뿐더러 자기합리화로 이어지기에 십상이다. 어느덧 대학 생활의 반기량을 흘려보낸 나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가?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자유를 즐기고 있다. 가끔은 자유로울 때 나오는 내 모습이 진실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게으름을 더 멀리하고, 타인에게 나눔을 베풀려고 하는 것 같다.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 주관적이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난 스스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인지했지만, 아직 온전히 고치거나 회개하지는 못한 것 같다. 나에게 남은 2년의 대학 생활을 이것에 집중하여 보내야겠다.

〈김민선 엘리사벳 / 토마스장학회 12기〉

◆ 강론길잡이 <선포와봉사>(격월간)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선포와봉사>는 주일미사 독서와 복음 해설을 통해 하느님 말씀에 한 걸음 더 깊이 다가서고, 신부님 강론 준비에 도움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물론 일반 신자분들에게도 주일 독서와 복음 묵상에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1년 구독료는 7만 원(총 6권), 날권 15,000원입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연구원(02-3672-025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277-017405-04-028 예금주: 기쁨과희망

선한 이들이 여의도로 갔으면 좋겠다!

끔찍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다. 열두 달째. 대선은 아직 4년이나 남았고... 아, 괴롭다...

생각하기도 싫은 역사지만, 조금만 아주 조금만 복기해보자. 일제강점기를 극복한 후 김구, 이승만과 반민특위, 박정희와 친일파, 군사독재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한 김영삼, 본인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전두환 등을 용서한다는 김대중, 나라 경제를 자기의 배 속 채우기로 이용한 이명박, 머리 올리느라 정신이 없어 꼭두각사가 된 세월호 참사의 박근혜. 이태원 참사를 몽개면서, 구약성경 모두를 암기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부인을 둔 검사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그의 충성 연기에 속아 넘어간 문재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암울한 현실이다.

휴우~. 한숨만 절로 나온다. 그저 마스크이 전하는 뉴스만 보아도 나라의 품격이 말이 아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그의 부인,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신 그의 장모님께서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송두리째 말아 들고 계시니 말이다. 그런데 더 뻔뻔하고 놀라운 일은 이거다.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엘리트 율사라는 사람, 지금은 (비록 비대위원장이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 자리까지 꿰찬 이가 범죄의 증거물로 압수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수사팀은 비번을 몰라 휴대폰을 풀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그가 검찰 출신이면, 오히려 술선수범하여 수사에 협조할 일이 아니었단가. 그뿐만 아니다. 수사하여 사실을 밝혀야 할 검찰은 범죄사실로 의심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최근 다올백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도 없다. 최근에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을

‘운동권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폄하하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었다고 해도 민주화 인사들을 수사하고 탄압하던 우리가 할 소리는 아니지 않은가.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마의 세계, 악의 세속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톨릭 신자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신앙인의 깨어있음을 강조하신다.

우리 가톨릭인들은 되도록 순명, 청빈, 정결이라는 복음삼덕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그중에 순명은 개인적인 고집을 꺾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 교회의 누군가는 올바른 정치를 요구하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제들을 두고 정치하는 사제라며 왜곡, 선동하며 주교님들께 일러바친다. 교황님의 뜻을 좇아가려는 사제들을 정치적이라 하며, 본인들은 정작 수구 정치적 집단, 그것도 수구 개신교 집회까지 가서 활약하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왜 현재 교회의 최고 어른이신 교종의 말씀에는 따르지 않는 것인가! 나는 대다수의 선한 지향을 가진 가톨릭인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또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이 국회로 가고 싶어 할 것이라 믿고 싶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마태 8,16).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악마들을 쫓아내시지만, 우리는 선거로 악마들을 쫓아내야 한다! 기쁨과 희망이 있는 더 나은 세상,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원천일 프란치스코 / 서울교구)

2024년 연구원 총회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에 총회를 개최해서, 2023년 사업, 재정, 감사보고를 했고, 2024년 사업계획, 예산, 임원진 구성에 관한 안건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 목표와 방향을 아래와 같이 두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총회자료집의 일부를 함께 나눕니다.



2024년 2월 22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정기총회가 열렸다.

1. '암흑 속의 횃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창립 50주년-1974년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 구속을 계기로 결성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1974년 9월 26일, '제1사국선언' 발표를 계기로 사제단 창립).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 역할을 했던 사제단이 역사의 변천 속에서 시대의 징표를 살피며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왔던 50년의 세월을 역사화, 문헌화, 신학화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는 사제단을 객관화하여 성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①역사화: 역사학자 전우용에 의해 <사제단 50년사>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상반기 원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②문헌화: 1988년으로 중단된 <암흑속의 횃불> 후속 작업이 준비 중이다. 이는 사제단 50주년준비위원회와의 협조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③신학화: 앞의 역사화, 문헌화 작업을 바탕으로 사제

단의 정체성과 역사적 미션에 대한 신학적 검토 작업이 요청된다. 사제단 활동의 바탕을 이루는 신학적, 사목적 동기를 살피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위원회의 꼼꼼한 논의와 신학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가우디움 옛 스페스' -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30주년-1994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사제단 활동의 문서화, 신학화 작업이 요청되었고, 이에 1995년 사제단 창립 멤버를 중심으로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창립되었다(1995년 8월 7일, 창립총회 개최).

-연구원의 초기 작업은 <암흑속의 횃불>을 통해 사제단의 문서를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이후 정기 심포지엄을 통해 역사와 시대의 물음에 신학적 응답을 마련하고, 강론길잡이 <선포와봉사>(1999년 11월 창간)를 발간하여 사제들의 사목 활동에 협조하고 있다. 이후 신앙강좌(성경, 사회교리, 신학), 사순특강을 통해 연구원의 정체성을 대중에게 알렸으며, 사목잡지 <기쁨과희망>(2008년 6월 창간)을 발간하여 연구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총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년 연구원 30주년을 맞아 사목현장 <기쁨과희망>과 하느님 나라 선포를 위한 사제단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사제단과 연구원의 신학과 영성을 더욱 집중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데이터 구축: 그간 간행물(소식지, 함께하는 사목, 선포와봉사, 기쁨과희망 등)과 심포지엄, 사순특강, 기쁨과희망의날 행사와 관련한 일람을 만들어 연구원의 방향성과 역사성을 확인한다.

②자료화: 위의 내용을 연구원 30년사 바탕 자료로 구성

③역사화: 현재 사제단 50년사를 집필 중인 전우용 역사학자에게 위임 예정

④신학화: 역사화 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학화, 영성화 작업 수행

▣ '기쁨과 희망'의 못자리를 위한 '사목연구원'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시요.

연락처: 02/3672-0253~4 후원계좌: 국민 031-01-0410-296(기쁨과희망)